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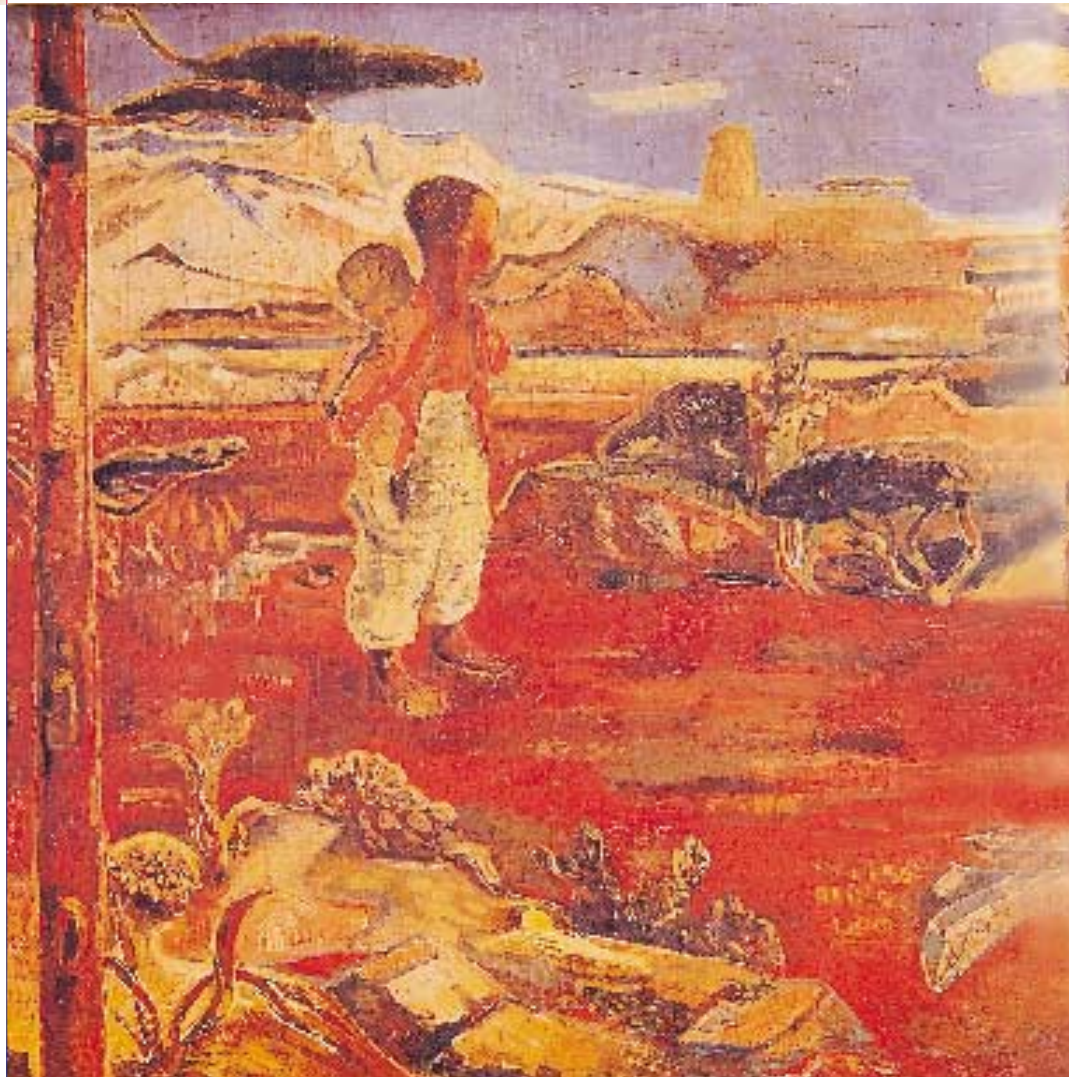
# 일제치하 선전 최고작가의 영광과 비애

# 이인성



〈자화상〉, 연도미상, 목판에 유채,  
32.5×23.5cm, 유족소장.

1930년대 조선 화단에서 '해성과 같은 존재'로 각광받은 이인성, 그의 생애는 불운했던 어린 시절과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으로 하여 더욱 드라마틱하다. 친일과 항토색의 엇갈린 논쟁 속에서도 어쨌건 그가 이 땅의 뛰어난 화가였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경주의 산곡에서〉, 1932, 캔버스에 유채, 130.0×194.7cm, 개인소장.

## 이인성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

얼마 전 호암미술관이 새 천년을 맞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는 취지로 마련한 전시회(1999년 12월 10일~2000년 2월 27일)가 있었다. 선사시대의 인면 장식 조개에서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오랜 세월 동안 한국적인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인물 표현 작품들을 망라한 전시회였다. <경주의 산곡에서>의 화가 이인성(李仁星 1912~1950), 그를 여기에서 만날 수 있었다. 문외한의 눈에, 근대적 삶의 편린을 보여주는 유화 작품들 가운데서는 이쾌대와 함께 그가 단연 돋보였다.

2년 전 월간 『미술』에서는 평론가 13명을 대상으로 ‘한국 근대유화 베스트 10’을 조사해 소개한 바 있다. 그때 공동 1

위를 차지한 작품은 국내 최초의 누드화로 기록되는 김관호의 <해질녘>(1917년작)과 이인성의 <경주의 산곡에서>(1936년작)였다. 또 2위는 이중섭의 1950년 초 작품 <흰소>가 차지했으며, 3위는 구본웅의 1935년작 <친구의 초상>과 김환기의 1938년작 <론도>, 그리고 오지호의 1939년작 <남향집>이 나란히 차지했다. 참고로 밝혀두자면, 작가별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작가는 이인성과 김환기였다. 그리고 그 뒤는 이중섭. 모든 투표는 일종의 인기투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인성의 작가적 위치를 짐작하게 하는 조사로서의 가치는 있지 않나 싶다.

아기를 등에 업은 소년과 무언가 고뇌하는 표정으로 바위에 앉은 또 한 소년. 옛 영화(榮華)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고도 경주를 배경으로 두 소년이 등장하는 <경주의 산곡에서>는 후기 인상파를 연상시키는 기법으로 향토적인 정경, 나아가 이인성 자신이 파악한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묘사한 작품이다. 대체로 일제치하의 비애를 미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경주의 산곡에서>는 그가 동경 유학중이던 1935년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해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받았던 바로 그 작품이다.

이인성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50년.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로까지 찬사를 받아온 그의 일생과 작품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화집이 삼성문화재단에 의해 근래 발간되었다. 한국 미술사에서 이인성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 그리고 작품세계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김희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김영나(서울대 교수), 신수경(한국미술연구소 연구원) 등의 평문. 여기에 화가 자신의 유품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며 당시 신문기사와 평문까지. 일반인들이 근대의 한 걸출한 예술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제법 반듯하게 닦인 셈이다.

향토적인 정경들을 독특한 시각과 강렬한 색채표현으로 형상화한 이인성은 일제치하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로 꼽힌다. 평론가 이경성은 “유채화를 통하여 하나의 한국미를 정립한 작가”로 이인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대구가 낳은 걸출한 화가로, 또 때로는 천재화가로까지 찬사를 받아온 그의 이름을 딴 미술상이 작년 하반기 드디어 제정되었다. 그 동안 이인성미술상 제정을 두고 빚어온 논란이 일단 한 마무리를 지은 셈이다. 이 상은 근대미술과 지역미술 발전에 공헌한 대구 출신 서양화가 이인성을 기리기 위한 것. 상을 제정키로 한 대구시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그의 50주기가 되는 올해가 시행 첫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인성미술상은 예산을 확보해두고도 시행이 보류돼 왔다. 작가의 친일활동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된 까닭이었다. 천재성과 예술성은 인정하지만 친일(親日)적 색채를 보인 화가의 이름을 딴 미술상 제정은 안 된다는 것. 미술계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편 근거는 대체로 이렇다. 이인성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만든, 흔히 ‘선전’이라고 부르는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를 통해 주로 작품을 발표한 점, 나아가 일본 국내 관전(官展)에까지 출품한 점, 일본 유학이 일본인의 후원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등.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인성은 17세



때 선전에 첫 입선한 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일곱 차례 계속 입·특선한 뒤 바로 추천작가가 된, 선전을 통하여 주로 활동하고 또 명성을 확고히 한 작가였다. 그리고 그의 일본 유학은 당시 대구여학교 시라가미 슈키지(白神壽吉) 교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었으며, 그는 '제국미술전람회' 등 일본 국내 관전에 출품하

기도 했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이 곧 친일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이인성미술상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측의 입장은 이렇다. 선전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았다는 게 친일의 근거가 된다면 일제치하의 거의 모든 서양화가들은 친일파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친일 작가는 태평양전쟁 때 회화봉공(繪畫奉公)이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일제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린 화가들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

이인성미술상의 제정 문제로 논란이 일 무렵 계명대학교의 이중희 교수는 "이인성은 친일파이기 커녕 향토색 발현에 열성을 쏟은, 마땅히 추앙받아야 할 민족 화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는 사실 미술상 제정 문제로 논란이 일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평론가 이경성은 "유채화를 통하여 하나의 한국미를 정립한 작가"로 이인성을 평가했고, 한국 근대미술사에 남긴 이인성의 공적을 인정하는 평론가 오광수는 "1930~40년대 한국화단의 핵심권에 줄기찬 조형적 발언을 시도한 성량이 풍부한 화가였다. 새로운 유화기법으로 향토적인 정경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형상화했다."고 평하고 있다.

인상파를 비롯한 서양 모더니즘의 양식을 이리저리 뒤따라다녔을 뿐이라는 비난과 천재화가라는 극찬. 이 두 상반된 평가는 어쩌면 일제치하 선전을 통한 이인성의 급성장을 보는 두 입장일지도 모른다.

###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의 신화

향토적인 정경들을 독특한 시각과 강렬한 색채표현으로 형상화한 이인성은 일제치하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로 꼽힌다. 총독부 주관의 선전 서양화부가 이인성을 위해 운영되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더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마디로

이인성의 장인 김재명의 남산병원. 이인성은 결혼과 더불어 이 병원 3층에 아틀리에를 마련하고 후진양성과 더불어 창작에 몰두했다. 지금의 계산오거리에 있던 이 병원은 1979년 도로확장으로 인해 헐리고 말았다.



이인성의 최초 선전 입선작인 《陰(음)》, 1929년 작이다.



〈계산동 성당〉, 1932, 종이에 수채, 35.5×45.0cm, 유족소장.

이인성은 선전을 통해 작가적 명성을 확고히 한 화가다. 그는 불과 17세의 나이로 1929년 제8회 선전에서 첫 입선을 차지한 후 선전시대의 종막을 고하는 1944년까지 6회 연속 특선에 최고상인 창덕궁상까지 받았다.

그가 추천작가가 된 것은 1937년으로 그의 나이 25세 때 일이다. 같은 해에 추천작가가 된 동양화부의 이당 김은호의 나이는 45세, 서양화부의 추천작가로는 1941년에서야 김인승과 심형구 정도가 관문을 통과하고 그 뒤를 손일봉이 따른다. 이러한 이력에서 평자들은 일단 그의 조숙과 화려한 경력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늘 술에 취한 채 무위도식하는 아버지와 혼자 힘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어머니로 해서 집안에 불화가 그칠 날이 없었고 이인성은 5년 늦게 보통학교에 들어가 간신히 졸업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소년 이인성은 숨막히는 가정 환경을 잊

기 위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몽둥이질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이인성은 『조선화단의 X광선』에서 그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어느 일요일 아무리 하여도 야외 사생 가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뒷방에서 가만 가만히 준비를 하여 가지고 뒷담을 뛰어넘어 산격동이라는 곳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사생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부친께서는 벌써 아시고 기다리다가 그만 붙잡혀서 화상이며 화필이며 모조리 분지르는 중에 그림 그린 것만 가지고 도망가고 말았다. 그 그림을 세계 아동작품전에 출품하여 특선을 받았으나 다만 나 혼자만 기뻐다.

이인성 신화의 출발이 되는 세계아동미술전람회 특선 수상은 대구미술사(大邱美術社) 시절의 일이다. 수창공립보통학

교를 졸업한 그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그림 공부로 나섰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미술사 서동진의 배려 덕분이었다. 당시 향토화단의 주축적이었던 서동진에게 발탁된 것은 그의 예술적 생애에 결정적 전기로 작용했다.

이인성의 4년 후배 김용조를 발굴하기도 한 대구미술사는 상업미술과 인쇄 등을 주종으로 하는 한편 미술강습소와 대구 미술인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던 곳. 1928년 10월 개벽사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세계아동미술전람회 개인 회화부에 이인성이 출품한 수채화 〈촌락의 풍경〉이 특선을 차지했다. 이인성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특선 사실을 별나게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나이가 이미 16세라는 점. 그리고 10여 명의 특선자 중 한 사람이라는 점.



《가을 어느 날》, 1934, 97.0×162.0cm, 호암미술관. 제13회 선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작품이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반라의 여인과 풀들의 붉고 노란 색조가 강렬히 대비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원시적 건강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인성의 화단 진출은 1929년 제8회 선전에 수채화 〈그늘〉이 입선된 때부터다. 한적한 거리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담은 〈그늘〉은 수채화의 특징을 잘 살린 작품이었다.

이인성은 철저하게 관전을 중심으로 하여 작가적 명성을 쌓아갔다. 국내에서의 선전에서 그랬고 또한 스무살 무렵 독일 하여서도 그가 도전한 곳은 '선전'과 '제전'이었다. 어디 기댈 곳도 없는 역경 속에서 성장한 이인성의 경우 일정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관전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일종의 엘리트 코스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여러 면에서 선전은 당시 신인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펼치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무대였다. 어쨌든

1930년대의 화단에서 이인성은 '혜성과 같은' 존재로 통하며 각광을 받았다.

#### 향토색 논쟁 - 친일이나 애국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장하듯 선전은 왜색적 화풍에 젖어들게 하는 일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선전이 크게 보아 일제의 문화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서양화가 일제치하에 도입되었으며, 당시 국내에는 미술대학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 유학이나 선전을 통해 서양화를 배우고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선전이 출세지상주의자나 친일 세력의 활동무대가 아니라 당시 대



고갱의 <망고틀 든 타이티의 두 여인>, 1899, 캔버스에 유채, 94×73cm,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다수 서양화가들의 거의 유일한 활동무대였다는 것은 가장 민족적인 화가로 꼽히는 박수근이나 오지호도 선전을 주된 발표의 장으로 삼았다는 데서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작가의 친일활동이 제기되었을 때 이중회 교수는 이인성이 1930년대에 향토회라는 대구지역 서양화 그룹에 참여한 사실을 주목하며 “경주지방 등의 풍경을 붉은 향토색 위주로 그리는 토속적 화풍을 보이면서 향토색 발현에 정열을 쏟았던 민족화가”라고 옹호한 바 있다.

이 향토색과 관련하여, 또 이인성의 작가적 이력을 추적하는 데 있어 향토회는 간과해버릴 수 없다. 향토회가 결성된 것은 1930년의 일. 영과회의 후신인 향토

회에 좌파 계열 미술가들인 이상춘, 이갑기, 이원식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영과회는 1927년 대구의 교남기독교청년회관에서 창립전을 개최하며 출발했는데, 회의 명칭은 과거의 진부한 미술을 지양하고, 원점(영)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3년 뒤 좌파 계열 미술인들이 빠진 채 모습을 드러낸 향토회의 성향은 이로써 순수미술 지향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당시 향토색론으로 향토회와, 경향파의 대척점에 선 순수파에 이론을 공급했던 김용준은 아나키스트 성향의 미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향토회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작가는 단연 이인성이었다. 향토회에 애착을 보인 그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빠지지 않고 작품을 출품했다.

당시의 향토색론은 일제치하의 농촌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다분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향토색론을 구현하고 있다는 이인성의 작품은 그 비판의 과녁 한복판에 놓이는 것일까? 한 작가의 작품 세계는 자신의 주장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것이므로 주의 깊은 관찰을 우선 필요로 할 것이다.

이인성에게서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되는 미술 경향은 인상주의가 아닐까 싶다. 감각적으로 느낀 인상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묘사하는 인상주의. 빛의 미묘한 변화에 따른 화면 효과를 추구하기도 한 그는

선전이 크게 보아 일제의 문화통치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또 이인성이 철저하게 선전을 통해 작가적 명성을 쌓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전이 출세지상주의자나 친일 세력의 활동무대가 아니라 당시 대다수 서양화가들의 거의 유일한 활동무대였다는 것은 가장 민족적인 화가로 꼽히는 박수근이나 오지호도 선전을 주된 발표의 장으로 삼았다는 데서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나아가 한국인의 미감에 의한 정서적 분위기를 강렬한 색조로 떠올려 우리 화단에 유화기법을 정착시켜 놓았다. 기법상으로 그는 세잔과 고갱에 연결돼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가을 어느 날> 같은 경우는 특히 <타이티>를 거론하게 한다. 그러나 해바라기며 옥수수 등이 가득한 시골 들녘에서 바구니를 든 반라의 처녀와 어린 소녀가 부각된 이 작품의 진정한 제작의도가 “당시의 침울한 사회 분위기에 대한 건강한 활력과 재생의 희망을 불어넣고자 한” 것이라는 김희대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경우 <타이티>의 모작이라는 혐의는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인성의 구상화에 관한 소고」에서 김희대는 <경주의 산곡에서>를 이렇게 읽어낸다.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이인성의 현실인식이 교묘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신라의 고도 경주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는 천 년의 영화를 누렸던 화려한 궁궐은 모두 사라지고 몇 조각의 기와장과 멀리 첨성대만을 남겨놓고 있다.

(중략)

폐허가 되어버린 경주라는 배경, 각기 상이한 포즈의 소년들은 우리로 하여금 갖가지 문학적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이인성 구상화의 묘미라 할 수 있다. 특히 앉아있는 소년의 감겨진 눈은 이인성의 자화상이나 인물화에서 자주 보이는데 이인성이 일제치하 한국인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기에 감은 눈으로 그렸다는 김용성의 증언과 결부시켜 볼 때 작품해석의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찬란했던 역사를 증언하는 갖가지 유물들과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소년의 모습과 연관지어보면 단순히 가족 내의 이야기, 예를 들면 들일 나간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거



《정물》, 연도미상, 캔버스에 유채, 36.0×44.0cm, 개인소장, 결혼 후 양화연구소를 개설할 때, 이인성의 생애 중 가장 행복한 시절에 제작된 것으로 단정한 붓질과 차분한 구도가 특징이다.



《해당화》, 1941, 228.0×145.0cm, 호암미술관, 제23회 조선미전에 추천작가로서 출품했던 작품으로 현재 남아있는 이인성의 작품 중 가장 큰 것이다. 원산의 해안가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이라고 한다.



〈창기〉, 1934. 캔버스에 수채, 69.5×88.5cm, 호암미술관. 이인성의 초기작은 대개 수채화로 이 작품은 마포에 수채로 그린 것이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실내와 야외가 동시에 밝은 햇살 속에 재현되었다.

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화려한 영광이 또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조국해방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인성의 심정을 매우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고향 상실감'의 발로라든가 '무기력한 패배주의가 세기말적인 독특한 상징성을 띠고 기념화'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들은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작품읽기 또한 철저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 작가의 세계를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며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여지는 많아 보인다.

### 천재의 어이없는 종말

이인성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뒷날 자

신의 대표작으로 꼽힐 〈경주의 산곡에서〉와 〈가을 어느 날〉 같은 작품을 얻는다. 그리고 디자인 공부를 위해 유학과 있던 김옥순을 만난다. 대구 남산병원장의 딸이었던 그녀와 귀국한 이듬해 결혼한 그는 남산병원 3층을 현대식 화실로 제공받아 창작혼을 불사른다. 그러나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때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아주 짧게 막을 내린다. 1940년 부인이 사망하면서 그는 폭주에 절제를 잃은 생활로 한동안을 보낸다.

해방 후 재혼으로 생활과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한 한편 동화화랑에서 개인전(1948년)을 열고, 또 국전 심사위원 등으로 활약한다. 그러나 이인성의 1940년대 후반은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개척하지 못한 시기로 기록되고 만다. 적 치하에서의 성공이란 어쩔 수 없이 부역의 혐의를 받게 되는 법. 해방 후의 혼란기에 그는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것이 일제치하 선전을 통해 명성을 확보한 작가가 감수해야 할 운명은 아니었을까.

막 유입된 유화를 남다른 재능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나라에 정착시킨 이인성. 해방 후의 혼란과 동족상간의 전쟁이 휩쓴 이 시기가 지나간 뒤였다면 이인성은 아마 1930년대에 이룩한 작품 세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또다른 진경을 펼쳐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철저히 일제치하 선전 작가로서의 그것이었다.

한국동란이 계속되던 1950년 11월 4일,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이인성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경과 다투다 오발한 총에 맞았다. 천재라고까지 불리던 화가의 죽음으로 씩 어울린다 싶다가도 뭔가 어이없다는 느낌도 주는 최후였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는 38세.